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2026. 6.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1
II. 우리 해외건설의 현 주소	8
III. 해외건설 산업의 기본방향	15
IV. 제4차 진흥계획 추진실적	16
V. 제5차 진흥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20
VI. 세부 추진과제	21
1.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 육성	21
2.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수주 경쟁력 강화	30
3. 해외건설 산업 지원기반 확충	38
VII. 추진일정	46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1. 세계 건설시장

- (동향)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반등했으나, 이후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5년까지 성장세가 다소 둔화
- '24년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약 14.6조불로 '23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25년은 '24년 대비 5% 성장한 약 15조불 전망('25.7월)
- (전망) '26~'30년은 AI 등 신산업 확대, 주요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연평균 6% 성장세가 기대되며, '30년은 20.5조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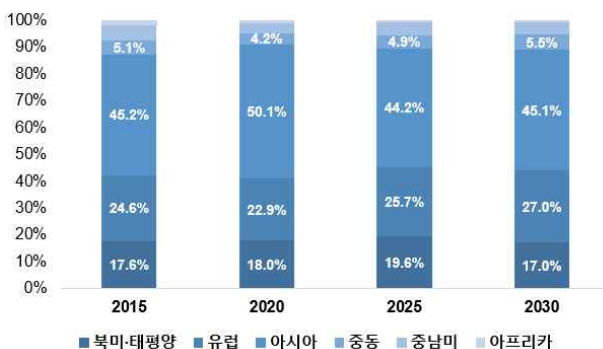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 추이 및 성장 전망(IHS Markit,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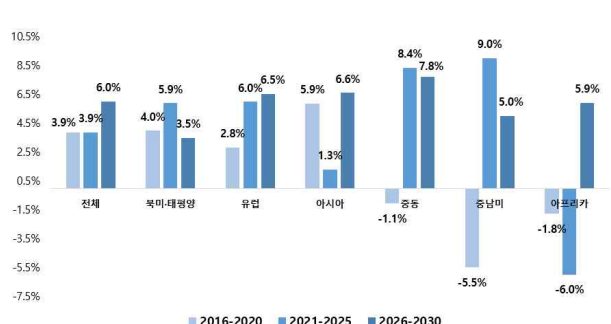
* 출처 : IHS Markit(글로벌 산업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조사기관, '16~)

- (지역별) 아시아, 유럽, 북미·태평양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26~'30년 간 중동(7.8%)·아시아(6.6%)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 전망

<지역별 건설시장 비중(IHS Markit,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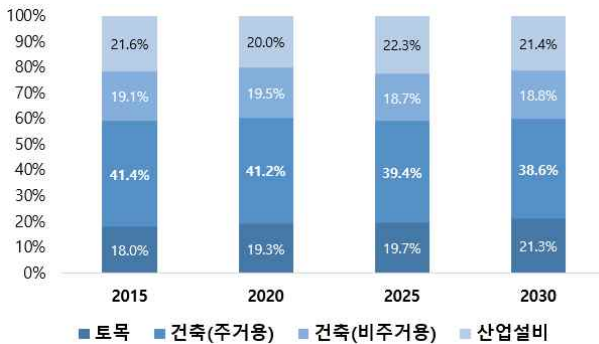
<지역별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IHS Markit,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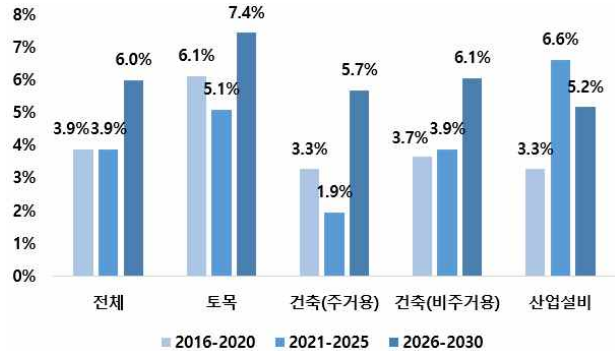
○ (공종별) 주거용 건축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원자재 가격, 관세 인상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향후 도시화, 기후 변화에 대한 인프라 대응력 강화 등으로 교통·상하수도 등 토목 부문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공종별 건설시장 비중(IHS Markit, '25.7)>



<공종별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IHS Markit, '25.7)>



【 지역별 건설시장 정책 동향 】

지역	건설 관련 정책
아시아	- 인도·아세안 국가 중심으로 교통·생활 개선, 균형발전, 디지털전환 등을 목표로 인프라 정책* 추진, 대형 토목·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전망 * 인도 가티 삭티 국가 마스터플랜('21~'46) 등 **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인니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누산타라 신수도 등 - 재정 제약으로 다자개발은행(MDB)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확대 추세, 외국자본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환경 정비* 진행 중 * 인니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법률·규제 장벽 해소, 필리핀 PPP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북미·유럽	선진국* 투자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노후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AI데이터센터·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가속화 * 미국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캐나다 Investing in Canada Plan, 유럽 Green Deal·RePower EU 러·우 전후 교통·물류 인프라 위주의 재건사업 본격 추진 전망
중동	- 사우디·UAE 등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적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과 수소·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간 균형 모색하며 성장 * 사우디 AI 관련 AWS 인프라 리전 확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냉각·네트워크 수요 증가 예상, UAE 연방 철도망, 에너지 전환 투자(태양광,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사업 등 추진
중남미	-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의 교통·항만·철도 분야 인프라 개발계획 및 PPP 사업 확대, 에너지 분야 투자 수요 지속 전망 - 재정 여건상 MDB(IDB, CAF), PPP를 활용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참여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지속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확대로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서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중, 국가 간 도로·철도 등 연결사업 활성화 전망 * 아프리카 지역 자유무역지대 출범('21), 동아프리카 공동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등 - 주요 개발금융기관(WB, AfDB 등)의 재원이 시장을 주도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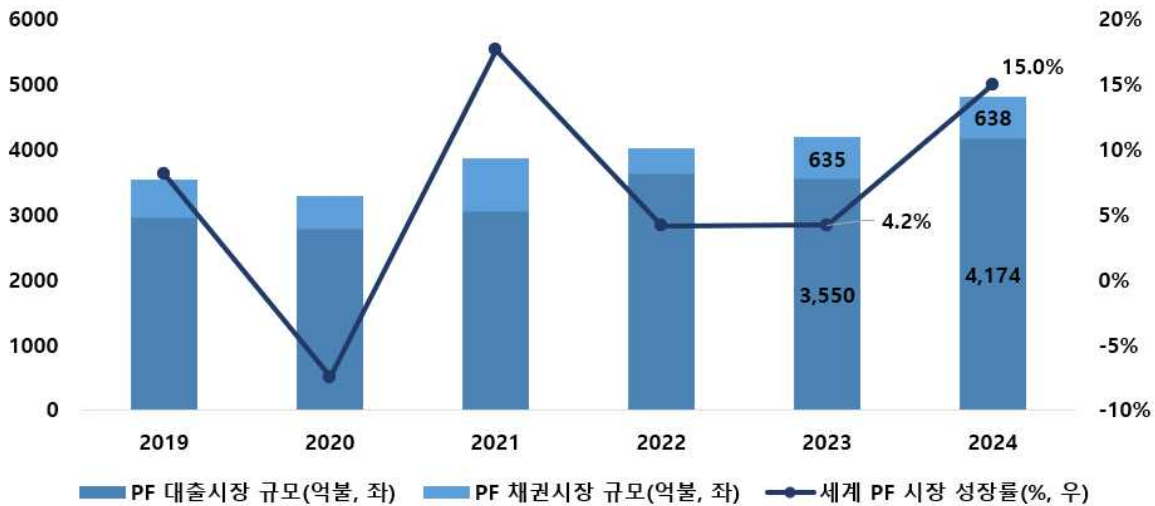
2. 세계 인프라 금융 시장

- (동향) '24년 기준 글로벌 PF 시장 규모는 약 4,812억불로, '23년 (약 4,185억불) 대비 15%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

* 투자개발사업(PPP) 시장 규모는 사업성 토대로 금융이 조달되는 PF 시장을 통해 추정 가능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간과 공공이 공공 시설물, 에너지시설, 서비스 등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장기 협력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PF를 동반

<세계 PF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Refinitiv,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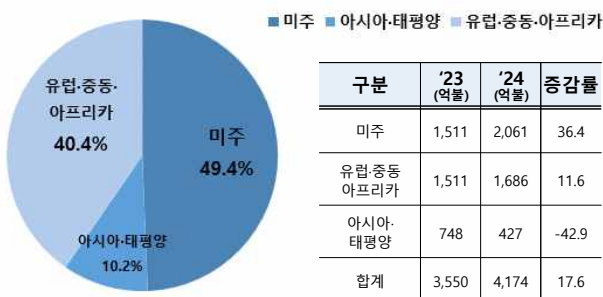


* 출처 : Refinitiv(영국 런던 소재 세계 최대 수준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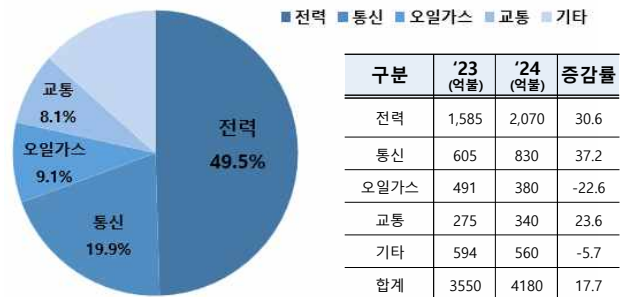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미주(49%), 유럽·중동·아프리카(40%), 아시아 등(10%) 순, 공종별로는 전력(49%), 통신(20%), 오일·가스(9%), 교통(8%) 순

- 미주·유럽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선진 시장에서 활발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분야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지역별 PF(Loan) 금액(Refinitiv,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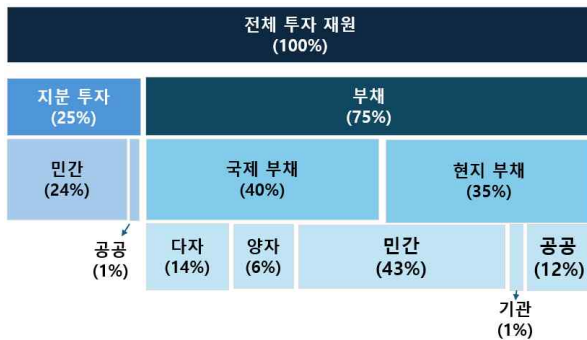
<공종별 PF(Loan) 금액(Refinitiv,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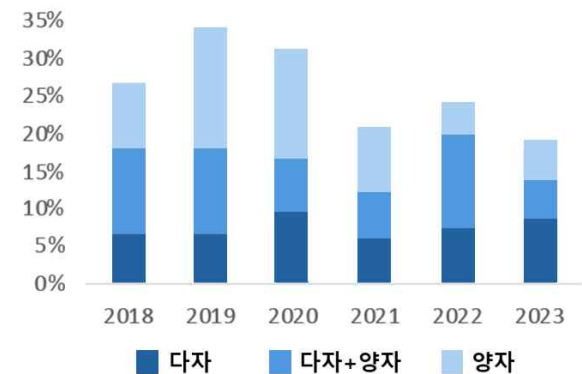
【 개도국 투자개발사업 자원 구조 】

- '23년 기준 개도국 투자개발사업 자원 구조는 민간(67%), 개발·수출 금융기관(20%), 공공(1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MDB 등 개발·수출 금융기관의 참여**(다자 지원)가 **확대**되는 양상(세계은행 연차보고서)

<투자개발사업 자원구조(세계은행, '24.5)>



<투자개발사업 자원 비중 추이(세계은행, '24.5)>



- (전망) '26~'30년 글로벌 인프라 자원 부족분은 '21~'25년 3.7조불 대비 약 18% 증가한 약 4.4조불로 추정

* 인프라 수요 대비 부족한 자원(Gap)은 민간 자본 등으로 충당 가능성 → 잠재 PPP시장

- (지역별)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 약 1조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족 비율은 아프리카(53%), 미주(34%)가 높은 수준

<지역별 글로벌 건설 자원 부족분 및 부족 비율(GIH, '25.10, 단위: 조불)>

구분	필요 자원 (Needs)	조달 가능 자원 (Investment)	자원 부족분 (Gap)	부족 비율 (Gap/Needs)
아시아	10.76	9.23	1.52	14.2%
미주	4.16	2.74	1.42	34.2%
아프리카	1.85	0.87	0.98	53.0%
유럽	2.96	2.56	0.40	13.6%
오세아니아	0.39	0.35	0.04	10.2%
총계	20.12	15.75	4.37	21.7%

* 출처 : Global Infrastructure Hub(G20이 '14년 호주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글로벌 인프라 정보를 생산)

- (분야별) 부족분은 도로(1.6조불), 에너지(0.6조불), 철도(0.2조불) 순

<분야별 글로벌 건설 자원 부족분(GIH, '25.10, 단위: 조불)>

구분	도로	에너지	철도	통신	수자원	공항	항만	기타	총계
자원 부족분	1.60	0.58	0.23	0.20	0.14	0.11	0.11	1.40	4.37

【 개도국 투자개발사업 및 MDB 사업 동향 】

- (개도국 PPP 투자) '23년 중·저소득 국가 등 개도국에서의 PPP 투자 규모는 '22년 대비 5% 감소한 860억불이나, 투자 건수는 대폭 증가

<연도별 PPP 투자액 및 프로젝트 건수(세계은행 연차보고서)>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투자액(억불)	687	953	985	868	457	762	917	860
프로젝트수(건)	340	369	417	400	252	240	263	322

- (지역별) 동아시아·태평양(중국·필리핀 등),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집트 등)에서 투자가 급증하고,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
- (공종별) 에너지(624억불, 73%), ICT(78억불, 9%) 투자실적은 급증한 반면, 교통(138억불, 16%), 상하수도(18억불, 2%) 등은 감소 추세

- (MDB* 지원 규모) '24년 주요 MDB의 지원 규모**는 약 354억불이며, 세계은행(162억불), 아시아개발은행(72억불)이 약 66%로 대부분을 차지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 공적자금(ODA), 공여국 내 민간기업에게 제공하는 대출 등

<'24년 MDB 지원 규모(OECD, 단위: 백만불)>

MD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시장규모	16,297	7,230	4,127	2,071	3,429	2,308

- (지역별) '24년 아시아 지역 집행액은 약 180억불로, 전체 MDB 시장의 절반 이상(약 51%)을 차지, 이어 아프리카(94억불, 27%), 미주(40억불, 11%) 순

<'24년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역별 지원 규모(OECD, 단위: 백만불)>

구분	유럽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계은행(WB)	1,405.5	6,413.0	1,939.0	6,392.9	147.3
아시아개발은행(ADB)	-	-	-	7,078.8	15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642.2	142.7	-	3,342.5	-
미주개발은행(IDB)	-	-	2,071.0	-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609.4	573.9	-	1,246.5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2,308.1	-	-	-
합계	3,657.1	9,437.8	4,010.0	18,060.7	298.8

- (분야별) '24년 기준, 에너지(145억불) 및 교통(131억불) 분야 집행액이 전체 시장의 약 78%를 차지, 이외 수자원 및 통신 분야도 지원

<'24년 다자개발은행(MDB)의 분야별 지원 규모(OECD, 단위: 백만불)>

구분	에너지	교통	수자원·위생	통신
세계은행(WB)	7,771.6	4,009.6	2,911.0	1,605.4
아시아개발은행(ADB)	2,418.8	3,386.2	1,385.8	39.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673.5	2,021.5	432.4	-
미주개발은행(IDB)	639.2	1,063.2	345.6	23.0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544.3	1,219.5	223.5	442.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457.2	1,382.9	430.6	37.4
합계	14,504.6	13,082.8	5,728.9	2,1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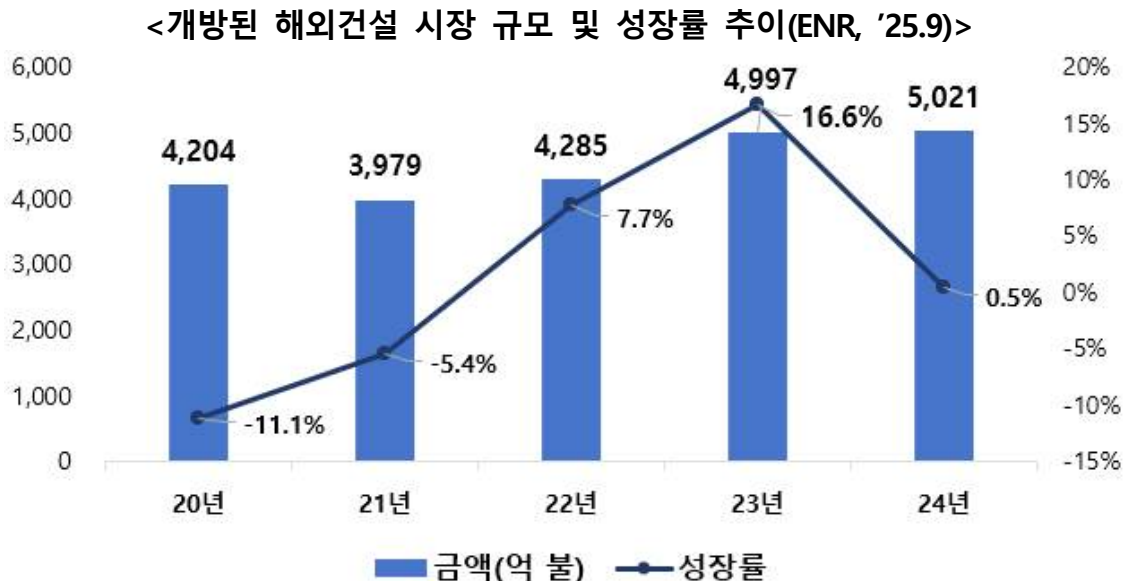
3. 해외건설 시장 및 기업 동향

- (시장 동향) 외국기업이 진출가능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였으나, '22년부터 반등하여 '24년까지 성장세 지속

* 외국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無, ENR(美 건설 전문지) 기준 타국에서 건설사업을 수주한 TOP 250 기업의 타국 매출액을 토대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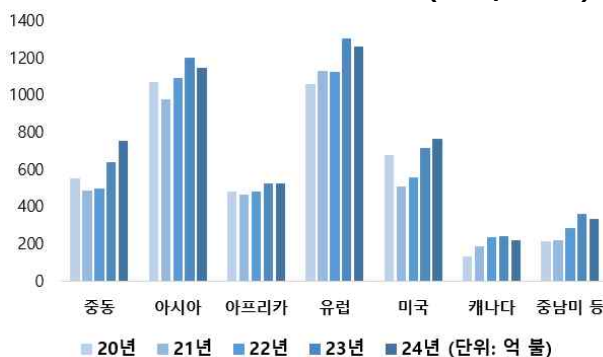
- 다만, 지역·국가별 법·경제·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건설 시장*을 확대할 필요

* 우리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국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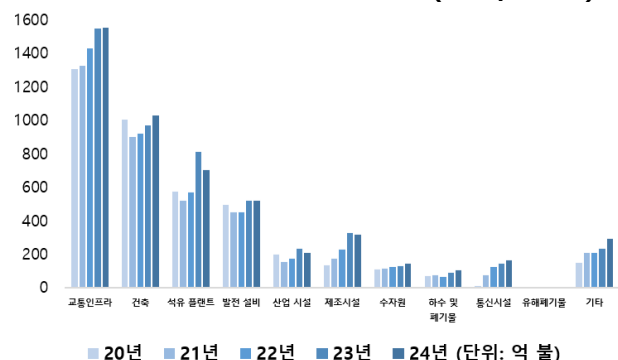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중동·아시아·유럽 시장의 규모가 크고, 공종별로는 교통 인프라·건축·발전설비·제조시설 등 사업이 활발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ENR, '25.9)>



<공종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ENR, '25.9)>



□ (기업 동향) 선진국의 건설 관련 기업은 독보적 기술을 토대로 시장을 주도하거나, 대규모 금융 투자를 동반한 인프라 사업에 주력

○ 유럽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은 유럽·미국·호주·오세아니아 등 선진 시장의 교통·발전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 중

* 방시(VINCI, 프랑스), 부이그(Bouygues, 프랑스), ACS(스페인), 호흐티프(Hochtief, 독일) 등

○ 미국, 프랑스 등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프라 분야별 특화 사업에 다수 참여

* 맥더모트(McDermott, 미국), 테크넵(Technip, 프랑스), JGC(일본), Larsen&Toubro(인도) 등

<선진국 건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사례>

기업(국적)	사례
방시, 부이그 (프랑스)	- 오랜 기간 대규모 엔지니어링, 시공 경험을 축적하면서 터널·해양구조물·대형 교량 등 고난도의 토목·인프라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특히, 방시는 유럽을 넘어 북미·남미·인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며 공격적인 M&A 전략을 통해 도로·공항 운영사업 인수
EDF (프랑스)	EDF는 프랑스전력공사로, 최신 원전 노형을 개발하여 중국·핀란드·영국 등에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중
테크넵 (프랑스)	프랑스·스위스·벨기에가 주도하는 FIDIC(국제건설링엔지니어링연맹) 등 국제 표준 계약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관리 및 계약 주도권 선점
악시오나 (스페인)	역삼투(RO) 기술 기반의 해수담수·수처리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모로코, 호주 등에서 세계 최대급 프로젝트 수행 중
맥쿼리(호주), 신트라(스페인)	- 미국 시카고 스카й웨이 유료도로의 운영사를 18.3억 달러에 매입 후 28억 달러에 매각 ⇒ 운영(O&M) 수익 외에도 자본차익 9.7억 달러 확보 - 신트라는 도로 부문을 전담하는 페로비알의 자회사로, 통행 수요 예측 및 고급 가격 분석 노하우를 통해 독보적 경쟁력 확보
페로비알 (스페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407 ETR 유료 고속도로의 운영사를 21억 캐나다 달러에 매입 ⇒ 10년 만에 투자원금 회수, 자산가치 약 35배 상승

○ 중국 기업들은 일대일로 외교전략에 기반, 정책금융과 결합한 투자·건설·운영 통합모델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진출

- 인력·공급망·조직·네트워크 현지화 전략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포트폴리오 변화 등을 통해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 추진 중

Ⅱ. 우리 해외건설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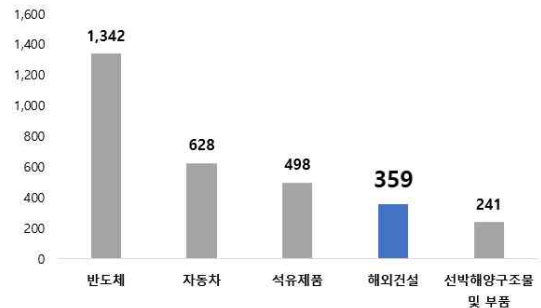
1. 해외건설의 현 위치

□ (해외건설의 위상)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누적 수주 금액 1조불을 달성하며 일자리 창출 및 경상수지에 기여

○ 최근 5년 평균 수주금액은 359억불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에 이어 네 번째 수출 산업군의 위상을 보유

<주요 품목 수출 및 해외건설 수주 비교('21년~'25년) (단위 : 억불)>

구 분	'21	'22	'23	'24	'25	5년 평균
반도체수출	1,280	1,292	986	1,419	1,734	1,342
자동차수출	464	540	708	708	720	628
석유제품수출	381	629	520	503	455	498
해외건설수주	306	310	333	371	473	359
선박해양 구조물·부품 수출	230	181	218	256	318	241



출처 : 한국무역협회(품목수출입 MTI 3단위)

○ 특히, '25년에는 팀코리아 성과인 체코 원전사업 수주로 473억불을 달성하며, 최근 10년 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준 기록

<연도별 수주현황>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연간	수주액(억불)	461	282	290	321	223	351	306	310	333	371	473
	수주건수(건)	697	607	624	661	667	565	499	580	606	605	589

□ (경제적 효과) 해외건설 산업은 수출 증가→생산·고용 확대→소득·소비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유발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 (산업 효과) 해외건설 수주 1달러당 약 0.25달러의 수출 증가, 생산 유발(21.8조원), 고용 창출(72,455명) 등 선순환 구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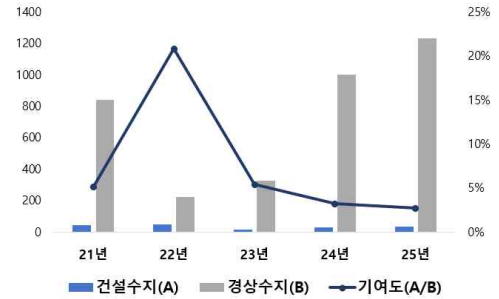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산업연관분석 결과(KIEP)>

생산유발액(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억원)	취업 유발인원(명)	외화가득액(억원)	외화가득율(%)
217,521	69,445	72,455	107,801	26.9

- (경상수지) 건설수지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수준의 최근 5년 평균은 7.4%로 여전히 높은 수준

<경상수지 중 건설수지의 기여도('21년~'25년) (단위 : 억불)>

구 분	'21	'22	'23	'24	'25	5년 평균
건설수지(A)	42	48	17	32	33	35
경상수지(B)	839	223	325	999	1,230	725
기여도(A/B)	5.1	20.8	5.4	3.2	2.7	7.4



출처 : 한국은행 (경상수지 :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 (시장 점유율) '20년부터 매년 300억불 이상 수주하여 ENR 기준 해외 시공 매출액 세계 5위 유지, 반면 설계·ENG 분야는 19위 수준

- (시공) '24년 매출액은 약 317억불로, 해외건설 시장의 6.3% 차지

- 중국, 튀르키예 등 신흥국이 급부상하고, 프랑스, 스페인 등이 견고한 선진 건설국 지위를 유지해 우리나라*는 선진·후발국 사이의 5위

* ('21) 227억불/5.7% → ('22) 263억불/6.1% → ('23) 341억불/6.8% → ('24) 317억불/6.3%

- (설계·ENG) '24년 매출액은 약 7억불로, 해외건설 시장의 0.8% 차지

- 우리나라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의 글로벌 순위*는 지속 하락하여 19위 수준으로, 기획, 설계, 공정 등 사업관리 역량 보완 필요

* ('15) 10위/2.4% → ('17) 12위/1.9% → ('19) 17위/0.8% → ('21) 17위/0.9% → ('23) 18위/ 0.8%

<시공 부문 국가별 순위(ENR, '25.9)>

순위	국가(업체 수)	점유율(%)
1	중국(76)	25.4
2	프랑스(4)	16.3
3	스페인(9)	13.3
4	미국(42)	6.5
5	한국(12)	6.3
6	일본(11)	4.8
7	이탈리아(11)	4.6
8	튀르키예(44)	4.1
9	네덜란드(3)	3.1
10	인도(6)	2.2

<설계·ENG 부문 국가별 순위(ENR, '25.9)>

순위	국가(업체 수)	점유율(%)
1	미국(70)	21.7
2	캐나다(4)	21.7
3	호주(4)	8.3
4	프랑스(7)	7.0
5	네덜란드(5)	6.6
...	...	...
16	독일(4)	1.0
17	벨기에(2)	1.0
18	이집트(5)	0.8
19	한국(9)	0.8

2. 수주 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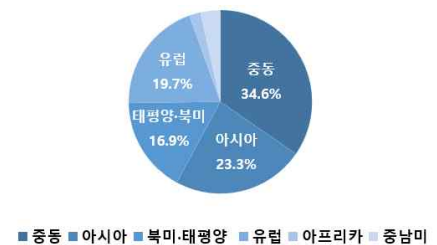
□ (구조) 아시아·중동(58%), 산업설비(58%), 도급(93%) 중심으로 수주

○ (지역별) 아시아·중동 시장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지역 다변화 노력으로 북미·태평양 지역 비중도 증가

- 다만,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26년 예정)에 따른 미국 인프라 투자 증가로 추후 북미 지역 수주 비중이 보다 증가할 가능성

<지역별 수주 추이('21년~'25년) (단위 : 억불, %)>

구 분	'21	'22	'23	'24	'25	합계	비중
중동	112	90	114	185	119	621	34.6
아시아	93	122	68	71	64	418	23.3
유럽	46	34	21	51	202	353	19.7
북미·태평양	39	45	103	47	68	302	16.9
아프리카	2	12	12	2	7	35	2.0
중남미	14	6	15	15	14	63	3.5
합계	306	310	333	371	473	1,793	100.0



○ (공종별) 산업설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발전·정유·가스, 해수 담수화 등 플랜트가 실적을 견인, 건축·토목 분야는 30% 상회

- 에너지 안보 및 경제·산업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발전사업*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 진출도 활발

* 체코 원전사업, 카타르 두칸 태양광 사업, 사우디 루마나이리아PP12 복합화력발전 사업 등

** 카타르 대형 이산화탄소 포집압축이송보관사업, 호주 ESS 사업, 인니 데이터센터 건설사업 등

<공종별 수주 추이('21년~'25년) (단위 : 억불, %)>

구 분	'21	'22	'23	'24	'25	합계	비중
산업설비	160	131	158	243	353	1,045	58.3
건축	41	87	121	52	72	374	20.8
토목	62	59	19	17	15	172	9.6
전기	31	13	18	20	18	100	5.6
용역	11	20	17	38	14	99	5.5
통신	0	1	0	1	1	3	0.2
합계	306	310	333	371	473	1,793	100.0



- (유형별) 최근 5년간 수주금액 중 도급 사업은 93%, 투자개발 사업은 과거 5년('16~'20년, 3.6%) 대비 증가한 7%
- 최근 미국, 호주 등 선진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투자 개발사업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개발형 사업 수주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수주액	비중
'21	31.2	10.2
'22	10.2	3.3
'23	14.6	4.4
'24	51.7	13.9
'25	17.7	3.7
합계	125.4	7.0

* 기업 신고액 기준



- (주요 특징)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주가 증가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증가로 글로벌 합작 및 국내기업 간 협력 확대
- (기술력) 과거 고난도 시공(초장대 교량, 초고층 빌딩 등)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최근 후발국의 추격으로 토목·건축 분야 기술격차 감소
 - * 국내 엔지니어 인건비 상승, 인도·중국·현지기업의 기술력 상향평준화, 현지화 강화 등 영향으로 설계·조달·시공(EPC) 중 시공(C)를 외국기업이 수행하는 경우 다
- 최근에는 탄소 포집·이송 기술, 고효율 가스터빈, TBM 등 고난도 핵심기술 개발 및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수주를 추진
 - * (사례) 우리기업이 카타르에서 LNG 플랜트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압축·이송하는 기술을 접목하거나, 발전사업에 국산 가스터빈을 적용하는 등 기술 동반 사업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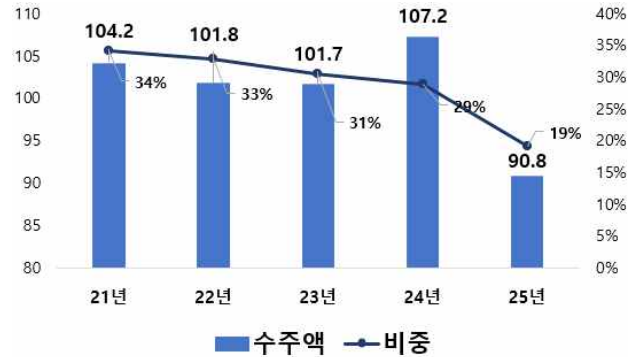
<기술력 기반의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의견>

- A기업 : 공항사업의 경우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중국 대비 50% 수준, 최근 해외 발주처들은 AI기반의 관리시스템 도입 등 고도화된 기술 요구
- B기업 :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시, 국내 프로젝트 및 R&D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실적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파트너십) 최근 5년간 국내외 기업과 합작사업 수주액은 506억불로 과거('16~'20년, 599억불) 대비 감소 추세

<합작사업 수주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수주액	비중
'21	104.2	34.1
'22	101.8	32.8
'23	101.7	30.5
'24	107.2	28.9
'25	90.8	19.2
합계	505.7	28.2



- 다만, 원전, 철도, 도시개발 등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면서 단일 건설사 단독 수주보다 글로벌 기업, 현지기업과 컨소시엄 선호

* 대형 사업일수록 기술·금융·리스크 관리 등 복합적 역량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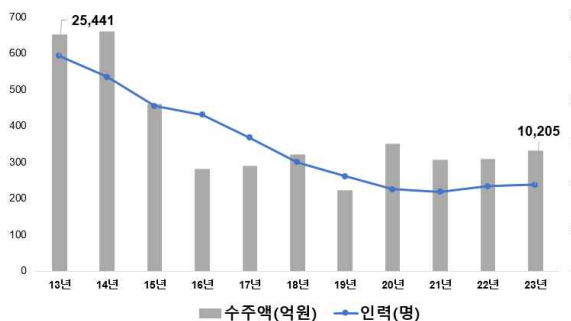
- 분야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팀코리아 등 국내 기업 간 협력도 강화

<팀코리아 성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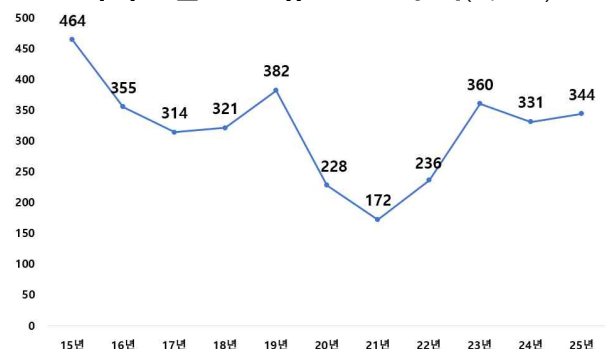
- (사례1)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25) :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국내 기업 참여, 유럽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공급망 구축
- (사례2) 튀르키예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사업('24) : KIND(금융), 우리기업 (사업관리·자재조달·운영), 한국도로공사(운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

- (인력·기업) 최고 수주액을 기록한 '10년대 이후 해외진출 인력과 신규 해외건설업 신고 건수는 지속 감소 추세

<국내 건설인력의 해외진출 현황(해건협)>



<해외건설업 신규 신고 추이(해건협)>



□ (ODA) 최근 5년간 ODA 사업 수주액은 약 48억불로,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에 최초 진출하는 기업의 시장 진입기반 제공

* (사례) 우리기업들이 국토교통 ODA로 캄보디아 녹색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17) 이후, 후속사업인 우회도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19) 및 설계 및 감리('24) 수주

<ODA 사업 수주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수주액	비중
'21	5.6	1.8
'22	12.9	4.2
'23	10.2	3.1
'24	8.3	2.2
'25	11	2.3
합계	48	2.7



<ODA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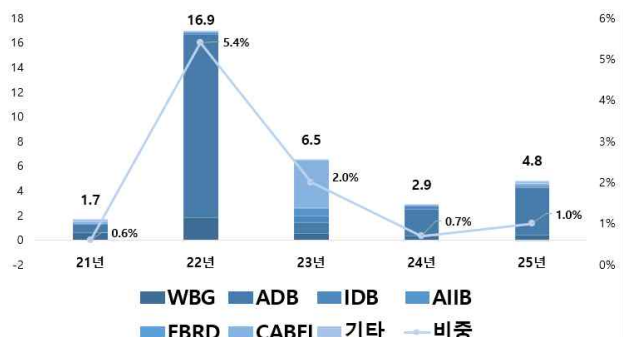
- A기업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및 상대국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ODA 사업이 절실하므로 지원 확대 요청
- B기업 : 중소기업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EDCF 등 지원 규모 확대 및 수원국과의 협상력 강화 필요
- C기업 : 투자개발사업이 증가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개도국에서는 ODA 수요도 높으므로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

○ (MDB 사업) 최근 5년간 MDB 사업 수주금액은 약 33억불로, 주로 컨설팅, 시공감리 등 용역 사업* 위주로 수주

* 탄자니아 철도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AfDB, '25), 태국 국제공항 확장 사업 시공감리(AIIB, '25), 페루 도로 개선 설계검토 및 시공감리(IDB, '24) 등

<MDB 사업 수주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억불, %)>

구 분	수주액	비중
'21	1.7	0.6
'22	16.9	5.4
'23	6.5	2.0
'24	2.9	0.8
'25	4.8	1.0
합계	32.8	1.8



3. 평가

□ 세계시장 규모는 확대 추세이나 우리기업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

-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 건설시장은 성장이 다소 둔화, 인프라 수요·투자 지속에 따라 시장규모 확대 전망

* '26~'30년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 : 연평균 6%('30년 20.5조불 규모 전망)

** '26~'30년 글로벌 인프라 자원 부족분 : 4.4조불. '21~'25년 3.7조불 대비 +18%

- 선진국 건설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대규모 금융 투자를 토대로 유럽·미국·호주 등 선진시장에서 공고한 입지 유지
- 중국 등 후발국은 강력한 정책금융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 확대 중

□ 우리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회 모색 필요

- 우리기업들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수주를 추진 중이고, 신규 기업·인력의 유입도 감소하여 추후 글로벌 순위 하락 가능성

* 수주실적(억불) : ('21년) 306 → ('22년) 310 → ('23년) 333 → ('24년) 371 → ('25년) 473^{원전포함}

ENR 시공 순위 : ('14~'16년) 5위 → ('17~'19년) 6위 → ('20~'24년) 5위

ENR 설계·ENG 순위 : ('20년) 16위 → ('21~'22년) 17위 → ('23년) 18위 → ('24년) 19위

- 다만, 최근 기술융합형, 투자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모색 중이고, ODA·MDB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진출의 마중물 역할
- 경쟁이 가속화되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

- 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전략적 진출
- ② 정책금융과 글로벌 금융을 활용하여 투자개발사업 참여 확대
- ③ 이를 뒷받침할 기업과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확충

Ⅲ. 해외건설 산업의 기본방향

- ① **(기술 경쟁력)** 우리 건설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기술을 보유, 반도체·AI·에너지·조선 등 분야에서 독보적 기업들도 존재
- 철도·공항은 해외 수출·수주를 추진 중이며, AI·에너지·조선 등 기술을 건설에 결합하여 독창적인 K-건설기술의 육성 가능성 잠재
 - 다만, 고부가가치의 설계·ENG, PM은 글로벌 순위가 지속 하락 중
- ⇒ 우수한 **K-건설**, **인프라 기술**과 **설계·ENG** 및 **PM社**들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② **(금융 경쟁력)** 해외건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펀드 조성, KIND* 설립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 연평균 투자개발사업 수주비중 : ('00~'04) 1% → ('10~'14) 2.8% → ('20~'24) 6.6%
- 다만,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재원이 적어 대형사업 추진에 한계*,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도 부족한 실정
- * PIS펀드 1단계(1.5조원)·2단계(1.1조원) 조성, KIND 자본금은 약 6천억원
- ⇒ **정부 금융재원**을 확대하고, 해외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디벨로퍼, 다자 개발은행(MDB) 등의 **글로벌 재원**을 우리기업의 **자금원**으로 활용 필요
- ③ **(산업 기반)**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보상이 낮아 신규 인력 유입*이 더디고, 유망한 강소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신규 진출 사례도 부족
- * 해외 진출인력 : ('12년) 2.8만명 → ('15년) 1.9만명 → ('18년) 1.3만명 → ('21년) 1만명
- 산업 진흥을 위해 '75년에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은 50년 간 변화한 현실과 괴리*되는 등 산업 전반의 활력이 부족
-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미구성, 수주 상황 통보 관련 규정 이행곤란 등
- ⇒ 해외건설 산업에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속 유입**되는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필요

IV. 제4차 진흥계획 추진실적

1. 주요 내용

- (기본방향) 2·3차 기본계획을 발전시켜 고부가시장 창출형 지원체계 고도화로 질적 성장과 해외 시장에서 도약하는 양적 성장을 동시 추구
- (비전) 고부가 시장 창출형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리더로 도약

□ 중점 추진과제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1. 동반협력 해외진출 활성화	1-1. 민관협력 해외진출지원 강화 1) Team Korea 지원체계 고도화 2) G2G 인프라 협력 강화 1-2. 포용적 해외협력사업 추진 1) 국토교통 ODA 사업 및 EIPP 등 타 부처 사업간 연계 강화 2) 국제협력을 통한 사업 기반 조성 및 우량 사업 선제적 발굴
2. 투자개발사업 성과 확대	2-1. KIND를 통한 해외사업 지원 고도화 1)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개선 2) KIND 금융지원 기능 강화 3) 투자자산 사후관리 고도화 2-2. 정책금융지원 강화 1) 해외건설정책펀드 투자 활성화 및 ECA 등과의 복합금융 모델 확대 2) 주요 MDB 및 선진 주요국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
3. 고부가산업 해외진출 지원	3-1. 미래 신산업 지원 1)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플랫폼 구축 2) 친환경·저탄소 해외사업 수주 지원 3) 신기술 해외 실증 지원 3-2. 엔지니어링사업 고도화 1) PM 사업 등 유망 엔지니어링 분야 지원 2) 빅데이터·AI 등 스마트 엔지니어링 수주지원
4. 해외건설 기반역량 강화	4-1. 사업발굴 및 지원체계 기반 강화 1)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발굴 기반 강화 2) 국제행사의 수주 지원 효과 제고 3)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 및 지원 체계 고도화 4-2.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1) 시장 개척 프로젝트 지원 사업 구조 개선 2) 수요 기반 맞춤형 전문가 양성 3) 해외건설산업정보 질적 고도화

2. 주요 실적

□ 동반협력 해외진출 활성화

○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 강화

- 높은 대외 신인도 및 공공기관 선도 투자 등을 기반으로 'Team Korea'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카타르 퍼실리티E 발전사업, 튀르키예 나카스 바삭셰히르 도로 사업,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 G2G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망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우선 사업권 확보 등 사업 발굴 및 개발 지원

* 방글라데시 Joint PPP Platform : 인프라사업개발 MOU 체결('19.4) 계기 공동협의체를 5회 개최하여 6개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 진행(~'23.8)

○ 포용적 해외협력사업 추진

- 국토교통 ODA* 사업 연계 및 타부처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협력 체계 활성화로 주요 국가에 대한 진출기반** 조성

* 전담기관(해외건설협회) 지정('21.2) 및 유망사업 발굴 위한 ODA설명회 개최(매년)

** (지원현황) '25년까지 총 32개국 2,295억원 지원(교통 54%, 공간정보 18%, 도시 15% 등)

-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국가 및 장기 협력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무상 지원기관과 연계 강화

* 중점국가에 사업 예산의 50% 우선배분, 도시개발·철도 등 분야별 장기협력사업 모델 제시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개정('25.2.)

□ 투자개발사업 성과 확대

○ KIND를 통한 해외사업 지원 고도화

- 타당성조사(F/S) 지원 확대*,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도입 등으로 사업 가능성** 제고 및 기업 리스크 완화, 수은과 협업체계도 구축

* ('21) 100억원 → ('22) 130억원 → ('23) 143억원 → ('24) 143억원 → ('25) 130억원

** 지원사업 성과평가, 책임강화 및 단계별 사업관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25.9)

- 법정자본금 확대* 및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KIND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연계 투자 확대

* KIND 법정자본금(5천억원 → 2조원) 상향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23.8)

** 지분투자 한도 상향(30%→50%) 대주주 허용, 사업외연 확대, 브라운필드 투자 허용 등('24.7)

○ 정책금융지원 강화

- GIF, PIS 1단계 펀드 투자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투자성과 창출을 위해 PIS 2단계 펀드** 조성 및 투자 개시로 마중물 역할 강화

* (GIF 1~7호) 4천억원 투자완료('22.12) (PIS 1단계) 1.5조원 규모 조성·투자완료('25.6)

** (PIS 2단계) 1.1조원 규모 조성완료('25.8) 및 투자 개시('25.9~)

- 수출입은행, 정책펀드 등과 연계 투자*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정례협의체** 구축 등 협력 확대

* ODA-PPP 협의체(수은, KOICA, KIND) 운영, F/S 연계투자 4건, 수은 연계 금융지원 3건

** KIND-IFC-MIGA 간 사업·리스크 정보공유 등을 위한 투자협력플랫폼('24.3)

□ 고부가산업 해외진출 지원

○ 미래 신산업 지원

-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관련 G2G 협력·연계 프로그램*(K-City Network, UGPP 등)을 통해 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해외 수출 발판 마련

* 인니·페루·우즈베크·케냐 등 29개국 대상 58건의 도시개발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 SMR, 태양광 등 친환경·저탄소 해외사업 수주 지원*, 액화·수소 플랜트 등 신기술 해외 실증지원 등 정책적 지원 추진계획** 마련

* 친환경·신재생분야 KIND 직접투자 13건,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지원 10건('24~)

** 해외맞춤형 친환경플랜트 건설현지실증 추진을 위한 전략(제2차 국토교통R&D종합계획, '23.9)

○ 엔지니어링사업 고도화

-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PM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사업실적 및 운영경험 확보를 위한 공공 주도 사업관리 시범사업** 확대

* 리마 메트로4호선 PMO, 산타로사 고가도로 PMO 등 수주활동 지원

** PM시범사업 추진계획 연구('20.8~'21.6),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22.12)

- PM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 로드쇼, KSP를 통한 기술교류**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글로벌건설 프로젝트 금융·개발 전문가 과정 운영, EDCF 아카데미 심화과정 등 참여 등

** (KSP) 콜롬비아 ITS('22), 베트남 BIM('22), 에콰도르 스마트물류('24) 등

□ 해외건설 기반역량 강화

○ 사업발굴 및 지원체계 기반 강화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 행사 계기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타 행사와 연계**를 통해 국제행사 내실화 및 시너지 창출

* (참여국/해외인사) 24개국/90여명('23년) → 30개국/100여명('24년) → 29개국/100여명('25년)

** 건설부문 기술·융복합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위해 GICC-스마트건설엑스포 연계 개최('22.8)

- 해외인프라협력센터*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발굴 기반 강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 KIND, 해외건설협회 위탁 운영중이며 해외여건변화에 따라 센터 기능 추가 등 개선 검토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 양질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이론형·실무형·커뮤니케이션 등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및 현장 전문가 육성 지원**

* 新 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 방안 연구용역 수행('22.6)

** OJT 청년 비중 확대('23년 68% → '24년 78% → '25년 88%), 마이스터고 해외현장실습 지원

-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수주활동 및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구축하여 수주 정보 통합제공

* (지원기업수/프로젝트수) 54/37('23년) → 60/45('24년) → 53/35('25년)

** 건기연, KOTRA, KIND 등 분산된 해외건설 정보를 통합·연계 및 일원화('23.7)

V. 제5차 진흥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기술력 기반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산업 육성



추진 전략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 육성

+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수주 경쟁력 강화

+

해외건설 산업
지원기반 확충

추진 과제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 육성

강점 기술 기반 K-건설 입지 확대

- 강점 기술 기반의 전략적 시장 진출 지원
- 한국형 인프라의 해외 수출 활성화

유망 기술의 경쟁력 확보 지원

- 유망 기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세계적인 PM 기업 육성으로 우리 기술의 영향력 확대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수주 경쟁력 강화

투자개발사업 참여 확대 지원

- 정책금융의 기업 지원 기능 강화
- 글로벌 금융 기반의 우량사업 참여 지원

인프라 금융 거버넌스 효율화

- 금융 지원체계 고도화
- KIND를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

해외건설 산업 지원기반 확충

민관협력 진출체계 고도화

- 팀코리아(Team Korea) 지원체계 강화
- 지원제도의 연계성 강화

강소기업 및 인재 유입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우수 인재의 해외건설 산업 유입 촉진

VI.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 육성

1-1 강점 기술 기반 K-건설 입지 확대

◆ 우수한 시공·EPC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시장을 공략하고, K-철도·공항·도시 등 한국형 인프라의 해외 수출 적극 지원

① 강점 기술 기반의 전략적 시장 진출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시공기술**을 토대로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위** 확보
 - 침매터널, 현수교, 초고층 건축 기술 등을 기반으로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 지원
 - * 선진시장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초기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 참여도 지원
 - 해외건설 R&D 등으로 기술 현지화 및 실증·인증 등을 지원하고, 제도가 미비한 국가에는 계획 수립, 제도화 등에 ODA를 활용
 - 우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트랙 레코드 제공*, 금융 구조화 및 보증 지원, 책임보험 확대 등 추진
 - *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대, 전문가 Pool 구성·공개, 민간-공공 간 교류 지원 등
 - G2G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 G2G 사업 발굴 사례 >

- ① 한-미 장관급 면담에서 미 측이 제안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우리기업에 전파하여 사업 참여 추진('26.1)
- ② 한-포 차관급 면담에서 포 측이 신공항, 고속철 등 인프라 사업 협력을 제안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사절단 파견 예정('25.11)
- ③ 한-베트남 간 G2G 협력 기반 '도시 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통해 박닌성 동남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23.6)

- 핵심 건설 공법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해 법률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G2G 논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지원

□ 타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해외 진출모델 개발 지원

- 고하중 건축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초정밀 시공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우수 시공기술을 타산업에 적용해 시장 창출

* (사례) 인도네시아에 AI 데이터센터 수출('25.9), 필리핀에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중('26~)

- 우수한 선박기술을 접목한 FLNG 플랜트, 원자로 기술이 필요한 원전 등 타산업군과의 융합형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 융합형 사업 수주 사례 >

- ①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프로젝트** : 국토부(KIND), 기후부(녹색펀드), 해수부(해진공) 등 범부처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EPC 수주('26.6) → 건설·조선·에너지업 동반진출 성과
- ② **체코 두코바니 원전** : 산업·국토부 등 범부처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187억불 규모의 원전사업 수주에 성공('25.6)

- 건설기업들이 우리 제조기업(반도체·자동차 등)의 해외 공장건설 사업에 진출하여 높은 품질의 공장 건설 지원

* (관련 시공기술) 초청정 클린룸 설계·시공, 진동·미세먼지 통합제어 기술, 모듈러 공법 등

- LNG 체계, 첨단 제조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등 EPC 역량이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복합 공정의 해외 진출 시 협력

< 우리기업의 LNG 플랜트 및 저온 저장 기술 >

분야	주요 내용
극저온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	· LNG를 -162℃ 초저온 환경에서 보관하는 기술 · 니켈강의 특수 용접 기술, 단열재 정밀 시공이 필요하며, LNG 극저온 저장탱크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시공 역량 확보
LNG 액화 공정 EPC 기술	·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드는 고난도 열교환, 압축, 냉매 사이클 기술 · 대형 열교환기, 냉매 압축기, LNG Train 공정 배치 등을 최적화하여 수행
LNG 터미널 통합 EPC 기술	· LNG 하역 부두, 저장탱크, 재기화 설비, 송출 라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 및 시공하는 기술 · 국내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의 대형 LNG 인수기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육상 LNG 인수기지 EPC 분야에서 역량 확보

② 한국형 인프라의 해외 수출 활성화

□ 한국형 기술 개발에 성공한 **철도·공항**을 **주력 상품**으로 육성

* 고속철('04년 개통), 인천공항('01년 개항)은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진출 시작 단계

- 단순 토목, 건축 공사를 넘어 **교통 신호, 통신, 보안, 운영 시스템** 등까지 포함한 **철도·공항의 패키지형 해외 진출** 추진

* 우리 고속철 역사상 최초로 우즈베크에 2,700억원 규모의 **고속열차 차량 수출**('23년), 몬테네그로 **공항 확장·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진출기반 마련('26년)

- 도시개발, 물류센터, 주택 등 **추가적인 사업 확장**과 **전략 거점 지역의 물류 인프라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주요 공급망 지원**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즈베크 우르겐치·타슈켄트 공항·터미널 건설·운영 사업 수주

< 공항 활용 연계진출 예시 >

주제	주요 내용
K-스마트공항 패키지화	세계 1위 서비스 노하우와 AI·생체인식 기반 스마트 보안 시스템, 친환경 공항 기술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
공항 중심 복합도시 개발 연계	단순 공항 건설을 넘어 배후 단지 개발, 물류 거점 조성 등 TOD 모델과 연계한 융복합 수출 추진
G2G 기반 운영권 확보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신흥국(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등)의 공항 건설~운영~지분 투자를 포괄하는 PPP 사업 모델 지원

□ 우수한 **한국형 법·제도**를 **先수출**하여 **우호적 진출환경** 조성

- 택지개발, 주택금융, 선분양·보증 등 **한국형 토지개발 법·제도**를 전수하여 우리기업이 **후속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주택법·토지보상법 등 택지개발, 청약기금 등 주택금융, 선분양·보증 등 지원제도 등

- 대상국의 제도 미비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에 실패한 과거 사례를 감안하여, 한국의 **투자개발 관련 법·제도 전수**도 추진

* 투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PPP법 제정, K-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법체계구축 등

- KSP, ODA 등을 **한국형 법·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도시와 AI 기반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의 패키지 진출 지원

- 도시 기반시설에 우수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플랫폼*을 확립하여 해외도시 수요 맞춤형 AI 서비스 패키지 수출 뒷받침

* 도시운영센터 + 센서·통신망 등 인프라 + AI 도시 서비스(교통·안전·에너지 등)

- AI 시티 패키지 등 선단형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중·대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규정 정비**

* (예시) 도시설계+PM+AI기술 / 스마트기술+금융 등을 결합하여 K-콘텐츠 융복합 수출

** K-콘텐츠가 포함된 융복합 도시수출의 경우 KIND의 사업권 등 취득을 위한 투자 허용 검토

- 해외 정부와 우리 기업의 수요가 높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의 활용 및 사업 연계 확대, 기술 표준화 등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

* 국제기구·국가간 협력, 로드쇼, 엑스포 등을 통한 글로벌 협력·홍보도 확대

< K-City 네트워크 사업 개요 >

- (개요) K-City 도입을 원하는 해외도시에 ①AI·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②AI 등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솔루션 실증 지원('20년~, 3~7억원/건)
- (성과) 27개국 58건의 도시·솔루션 계획 수립, 실증사업 지원('20~'25)

- 디지털 트윈 활용 하천관리시스템 운영, 지능형교통체계*(ITS) 적용 도로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도시개발 모델 제시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교통시설과 수단에 AI, 엣지컴퓨팅 등 최신 기술을 탑재하여 교통흐름·안전 등을 강화하는 시스템

<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

- 우리기업(네이버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구축 및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범람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 개발사업 수주('23년)
- 네이버 클라우드(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운영), LX(공간정보 기반 시뮬레이션 플랫폼), K-Water(수자원 관리 및 하천범람 시뮬레이션 기획·설계) 등 참여

【 AI · 디지털 기술 융합형 사업 발주 사례 】

< AI·디지털 기술 융합형 수주모델로의 사업 변화 >

구 분	기존 모델(단순 시공)	기술 융합형 모델(고부가가치 융합)
핵심역량	가격 경쟁력, 시공 인력 관리, 공기 준수	기술 제안, 운영 솔루션 제공
수익구조	공사비 마진	개발이익, 운영 수익, 데이터 수익
역할범위	시공(Construction)	전 주기(Plan-Build-Operate)
주요기술	건축/토목/플랜트 등 시공 기술	AI, 디지털, BIM, Green Tech

□ 카타르 루사일 스마트시티(Lusail Smart City) : 토목·도시개발 + IOT·BIM 통합 관제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카타르 도하 북부 약 23 km 지점, 면적 약 38 km ² 규모
추진배경	카타르 국가비전 2030과 연계된 스마트·지속가능 도시개발 사업
사업 내용	주거·상업·레저·인프라 복합개발 + 스마트시티 기술 인프라 적용
현황	일부 구역 완공 및 운영 중, 스마트서비스 시험단계 존재

- 도시 전역에 광섬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스마트홈·스마트오피스 자동화 등 ICT 기반 인프라를 적용하고, AI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 도입

* (적용 기술) IoT 기반 도시 관제 시스템, 스마트 파킹·스마트 조명, BIM 기반 인프라 설계·시공, 빅데이터 기반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싱가포르 창이공항 5터미널 : 건설+자동화·AI·디지털트윈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싱가포르 창이공항 동부 확대지구 'Changi East' 내, 약 1,080 헥타르 규모 개발
추진배경	아시아 태평양 항공시장 성장 대비, 싱가포르 허브공항 위상 강화 목적
사업 내용	제5터미널(T5) 건설 + 자동화·디지털·친환경 첨단터미널 설계
현황	착공 및 설계재검토 완료 단계, 중기 완공은 2030년대 중반 목표

- 옥상 태양광, 스마트빌딩관리시스템, 전기차 인프라 등을 적용하고, AI 기반 항공기 모니터링, 무인수하물 로봇릭스, 자동화 도킹·자율수송차량 등 운영

* (적용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공항 운영 시뮬레이션, AI 기반 여객 수요 예측, IoT 기반 설비관리 (BMS), 로봇릭스 기반 유지관리 등

□ 사우디 네옴 더 라인(NEOM The Line) : 건설·도시개발 + 디지털 트윈·AI 통합

구 분	주요 내용
위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레드씨) 연안, 타북(Tabuk) 지역
추진배경	사우디 비전2030의 일환으로 미래도시·첨단산업 거점으로 기획
사업 내용	거대 도시개발+스마트·자동화 인프라+로봇·AI·디지털트윈 기술 도입
현황	설계·기획 단계가 주로 공개돼 있으며, 전체 완공까지는 장기간 예상

- 도시개발에 3D 인지형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모빌리티 시스템, 에너지 인프라 등 도시 전체를 ICT·AI·데이터 기반으로 설계

* (적용 기술)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시스템, 100%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인프라, 건설 자동화·모듈러·3D 프린팅 적용 등

◆ 우리 전략기술의 해외 진출을 시장 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PM* 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기술의 영향력 확대

* PM 사업은 설계~금융~운영 등 사업 쏙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EPC 대비 리스크 부담이 낮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분류

① 유망 기술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 우리기업이 개발한 **전략 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

- 우리기업이 개발한 탄소 포집·저장, 바이오매스 플랜트 등 청정·무탄소 기술과 TBM, 건설 자재 등 해외 진출 유망 전략기술 선정
- G2G 협의, 금융 구조화 등을 통해 대형 전략기술 사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발굴 및 지원

< 검토 가능 사례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기반 도시모델 >

- (개요) 폐기물·오염원을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여 탄소를 감축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친환경 도시모델**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 (사례①)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 하수 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병합 처리 시설로,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 (사례②) **인천 서구 매립가스 발전소**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침출수를 폐기물의 부패를 유도하는 용수로 재활용
 - (사례③)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플랜트** : 국토교통 R&D를 통해 베트남에 사탕수수 찌꺼기 등 현지 미활용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플랜트 구축 실증사업 추진('25.8)
- (지원 전략) 세계적인 거대 매립지를 보유한 **동남아 국가**를 타겟팅하여
 - 1) 시장개척 지원 사업,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진출 가능한 국가 모색,
 - 2) BTO, BTL 사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수익성을 확보한 국내 사례 등에 기반하여 **제안형 PPP 사업**으로 지원,
 - 3) 고위급 외교 의제 반영 등 추진

- 해외 수요가 명확한 기술에 대해서는 수요대응형 R&D로 실증 및 인증, 기술 표준화 등을 지원하여 현지 맞춤형 사업화 추진

< 해외건설 수요대응형 R&D 추진계획(안) >

- (목적) 국토교통 기술 및 운영모델을 해외 수요 대상국(신흥·개도국 등)에 융복합 패키지로 현지화하여 실증 및 확산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내용) 해외 협력국 G2G 사업, ODA 사업 등 해외 발주처 수요사업에 타겟팅된 국토교통 기술의 현지개량·실증, 현지적합성 확보 및 사업화 지원
- (사례) A국이 한국에서 사용 중인 중소기업의 B기술 전수 요청
→ A국 기후 및 상황에 맞는 기술 적용 방식, 시범사업 진행 등을 R&D로 지원

□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시장 개척** 지원

- LLM(대형언어모델) 기반 AI 모델을 OCIS*에 탑재하여 기업별·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verseas Construction Information Service)
-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법률·세제 등 건설 환경, 기후 환경·문화 특성 등 분석에 소요되는 현지조사 비용 등을 지원
- 전통적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건설 플랫폼, BIM 등 시스템, 설계·공정관리 서비스 등 해외건설 콘테크 기업까지 정책대상에 포함
* 프랑스 방시 등 유럽기업은 터널, 도로, 공항 등에서 디지털 기반 시공관리 수행, 일본 기업들은 고난도 지하, 철도공사에 디지털 트윈 적용을 조기 상용화

< 콘테크(Con-Tech)의 개념 >

- (개요) AI, BIM, 드론,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을 융합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생산성·안전성 향상을 지원하는 건설기술 산업
* (분야)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및 플랫폼, OSC, BIM, 디지털센싱 등
- (예시) 건설현장 자재운반 자동화 서비스, 무인시공장비, AI 기반 품질예측 및 설비 제어 연동 시스템, AI 기반 4D 공간지능 플랫폼, AI 기반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 우리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 G2G 외교를 통해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화를 지원하고, 기술 교류 및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해외 인증 및 실증 사례 축적
- MDB와 기술협력 보고서*를 공동 제작하여 협력국에 배포하고, GICC, 국토교통과학기술대전 등 행사를 기술 홍보 계기로 활용
* 국토부-미주개발은행(IDB) 기술협력 보고서를 공동 제작하여 중남미 국가에 배포 예정

② 세계적인 PM 기업 육성으로 우리 기술의 영향력 확대

□ 사업 쏠단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가가치 높은 PM 기업 육성**

- 사업 단계별로 기술 요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PM 기업을 육성하여 사업 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까지 우리기술 반영 지원

< PM(Project Management) 개요 >

- (개념) 발주처를 대신해 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EPC, 유지·관리 등 사업 쏠과정을 관리하여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관리자
- (중요성) PM 비용은 통상 **총 사업비의 3~10%**이지만, **사람·지식 중심 서비스**로 인건비 외 직접비가 적어 **매출 대비 이익(이익률)**이 EPC보다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

- 국내 공공사업 PM제도 시범 도입을 통해 PM 분야 우리기업이 국내에서부터 사업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공 단계 감리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PM 역할을 사업의 쏠공정으로 확장

- KIND가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우리 PM 기업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PM 사업 수주액의 3배까지 완화

* (기존) 우리기업 수주·수출효과 → (개선) 우리기업 수주·수출효과 3배

- 국내 제조사의 해외 공장 건설사업에 우리 PM 기업이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사례) 리마 메트로 4호선 PMO, 페루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PMO 등 지원('20)

-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 우리 PM 기업을 동반하여 실적 확보를 지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 부여

* '창업 및 경제활성화' 항목 : 민간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및 수주지원을 위한 노력·성과 (해외사업(투자개발사업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반수주하는 경우 등)

□ 전문 PM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건설 산업 선도

- 우리 PM 기업이 MDB 초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기술 기반 컨설팅-ENG-운영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본사업 수주까지 지원

< 프랑스의 MDB 사업 협력체계 >

- (개요) MDB 사업 초기에 기술지원(TA)을 통해 마스터플랜, 입찰 체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익숙한 사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프랑스 ENG기업이 적극 진출
 - * 프랑스 표준(ISO, FIDIC 등) 반영, PM/CM 중심의 관리형 계약으로 현지 정부의 발주역량 보완 유도 등
- (사례) 세네갈 지역급행열차의 경우 정부 기술지원기금을 통해 시스트라(Systra)가 타당성분석, 설계, 발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사업 PM도 수행
 - 설계 단계부터 유럽 표준을 반영하여 에파주(Eiffage), 알스톰(Alstom) 등 프랑스 컨소시엄이 시공 및 시스템 구축 패키지 수주

- 우리 PM 기업이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형 인프라 요소의 해외 진출 지원

* (사례) A 기업이 원전사업을 수주하여 B 엔지니어링 기업이 설계 분야 동반진출('24), 수은 등 보증 지원을 통해 C 엔지니어링 기업이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수주('24)

- 공제조합의 보증 상품 활용 확대, 전문가 책임보험 신설 등을 통해 우리 PM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부담 완화

□ 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PM 전문가 육성

- PM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해외 사업 현장에 청년 인력 채용시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

-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업 실적과 PM 자격증, ESG 전문가 등 인적 요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입찰 참여 지원*

* 발주처는 언어, 국제 PMP 자격증, 사업 참여 실적 등 기본 요건과 ESG, 넷제로, 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의 참여를 요구

- 사업 기획, 타당성 분석, 재무·법률은 물론, 국제 자격(PMP, FIDIC 등) 취득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획·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육성

- ENG·CM 사업 실적 증명서, 건설기술인·건축사 경력 증명서 등 전문자격 증빙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하여 행정부담 완화

- ◆ 우리기업이 부가가치 높은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확보

① 정책금융의 기업 지원 기능 강화

-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정책펀드** 조성
 - KIND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사업 리스크와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개발사업 발굴 확대 유도

< 기업매칭펀드(안) >

- (방식) 기업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되, 기업 상황에 따라 매칭 비율, 펀드 형태 차별화
- (수요) 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2,170억원 규모의 투자참여의향서(LOI) 확보
- (특징) 블라인드 방식으로 관리하되, 고위험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역선택 방지

- 국부펀드, 국책은행 등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풍부한 **해외 기관**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주 활로** 모색

* (예시) 오만투자청(OIA), 인니 국부펀드(INA) 등과 KIND가 5:5 매칭비율로 펀드 조성

- 특히, **중동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펀드**를 신설하여 핵심 투자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 투자자로서 우리기업의 사업 지원

- FI로서 우리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KIND 직접투자** 기능 강화

- KIND의 **재원 확충**을 통해 투자 건수를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전환 유도

- 사업당 투자 규모 상향을 통해 KIND가 사업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사업환경** 조성

* 현재 KIND의 사업당 평균 투자 규모는 300억~1,000억원

- KIND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해외건설 산업에 지속 공급하는 **전문 디벨로퍼**로 도약

< KIND 직접투자 사례 >

- ① 미국 루이지애나 FLNG : 글로벌 운용사(블랙록)와 협업을 통해 해상 부유식 천연 가스 액화 플랜트 1호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기업 수주 지원('26.3)
- ② 우즈베크 우르겐치 공항 : 인프라 공기업, 건설사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르겐치 공항 개선 및 운영 사업을 수주하여 중앙아 지역에 최초 공항 수출('25.12)
- ③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 G2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하고,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22.9)

□ 정책펀드를 통해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에 금융 제공

- 국가 신용도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PIS 2단계 펀드*를 통해 투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업 리스크 경감 지원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Global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펀드

** (규모) 1.1조원(모태펀드 4,400억원+민간투자 6,600억원) / (경과) 조성('25.8), 투자 개시('25.9)

- PIS 1단계 펀드의 정책목표 달성도, 수익률 등 투자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신규사업 발굴의 마중물로 지속 활용

< PIS 1단계 펀드 투자 현황 >

- (규모) 1.5조원(모태펀드 6천억원+민간투자 9천억원) / (경과) 조성 완료('19), 투자(~'49)
- (성과)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하여 약 20억불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 견인('26.1월 기준)
 - ① 튀르키예 나카스-바삭세히르 도로 : EPC(1.9억불), O&M(0.5억불) 수주
 - ② 미국 콘초 태양광 발전 : EPC(1.6억불), 조달사업(0.2억불) 수주
 - ③ 인니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EPC(0.6억불), O&M(6백만불) 수주

-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기후부)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이 청정 에너지·무탄소 등 친환경 사업 참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 개요 >

- (개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24)
- (사례) 미국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PIS펀드 45백만불, 녹색인프라수출펀드 22백만불을 공동 투자하여 우리기업이 설계·조달(EP) 4.8억불 수주('25.7)

② 글로벌 금융 기반의 우량사업 참여 지원

□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원

- 연기금 등 공공이 운용하는 기금·자금을 활용하는 선진국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네트워크 구축

< 검토 가능한 기금 협력안 >

- ① 미국 에너지부의 '대출·보증 프로그램(LPO)'이 대출을 승인한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
- ② EU 연결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 등 유럽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 투입된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
- ③ 해외 연기금 기관과 협업하여 주거·상업 복합개발, 도시재생 등 공동사업 추진

- 대형 민간 운용사의 기금, 국제기구의 자금 등이 투입된 해외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 지원

* (사례) 블랙록(글로벌 운용사)의 미국 FLNG 사업에 KIND 공동 투자, 우리기업 수주('26.3)

□ 대형 인프라 사업 전문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 확보

* 호주 맥쿼리(386조원), 사우디 비전 인베스트(150조원 추정), 일본 스미토모(113조원) 등

- KIND와 글로벌 디벨로퍼 간 MOU 체결 등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 정보를 확보하여 해외진출 선도

* KIND는 일본 스미토모('25.1), 프랑스 EDF('25.9)와 협력 MOU 체결

- 고부가가치 사업을 보유한 글로벌 디벨로퍼와 컨소시엄 구성, 공동 펀드 조성 등으로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일본의 대형 디벨로퍼인 스미토모社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카타르 퍼실리티E 담수발전 플랜트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EPC 수주를 건인('24.11)

□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 정부 차원에서 **MDB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MDB 친화적***인 개도국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개발사업 자금의 다양성 확보

* MDB는 투자 결정 시 국제 환경·사회 기준 준수 여부, 수원국 경제발전 단계, 사업의 거버넌스 구조, 위험 분담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

< **MDB 자금과 결합한 투자개발사업** 수주 사례 >

사업명	내용	규모	기간	MDB	관련기관
네팔 UT-1 수력발전	수력발전소(216 MW) 건설·운영	8,946억원	'22~'52	ADB, IFC, AIIB	KIND, 남동발전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순환도로 66km 건설·운영	10,500억원	'20~'38	EBRD	KIND, 한국도로공사
튀르키예 나카스-바삭 세히르 도로	연장 고속도로 31.3km 건설·운영	22,036억원	'24~'42	EBRD, AIIB	KIND, 한국도로공사

- 사업 기획단계부터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신탁기금 사업***을 활용하여 **MDB 사업 초기**에 참여

* 사업타당성조사(F/S), 기술자문, 네트워크 형성 등 사업초기 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

** (예시) 세계은행 교육플랫폼(WBG Academy)과 한국철도공사가 함께 한국형 철도, 물류 경험을 개도국 정부와 공유하고 후속 정책사업까지 발굴하는 협력활동 수행

< **MDB 사업 참여 확대방안** >

- **KIND, 수출입은행의 MDB 사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MDB 입찰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리기업의 **컨설팅 사업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을 지원
- 인프라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MDB 컨설팅 사업**에 활용하고 **MDB와 협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매칭**
- **MDB사업 현지수주협의회**, **MDB 조달설명회** 등 **MDB와 우리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 주요 **MDB와 전문가 초청 연수**,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기업과 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투자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금융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KIND 역량 제고로 양질의 사업 참여 기회 제공

① 금융 지원체계 고도화

□ 투자개발사업의 단계별 금융 지원체계 구축

- 타당성조사(F/S) 등 사업 초기단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사업 결과물은 AI시스템을 통해 관리·확산하여 사업발굴 기회 확대

* (예시) 제안형 PPP사업의 제안서 작성비만 지원 → 입찰형 PPP사업까지 확대

- 유·무상 ODA, 수출금융(대출·보증), KIND 투자를 유기적·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 고속철 등 대형 인프라 수출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적극 활용

< 사례 검토 >

- (사례①) 미국 보잉, 프랑스 에어버스는 항공기 수출 시 국책은행의 금융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유리한 금리·만기·보증 조건 확보로 수출 경쟁력 제고
- (사례②) 우즈베크 고속철도 열차 입찰시 경쟁사들이 국가 금융 결합형 상품을 제시

* 프랑스 재무부 보증 차관 제공, 스페인 기업국제화펀드 차관 제공 등

- 자산 운용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공제조합의 해외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위험국가 진출시 MIGA*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 헷지를 유도

* 외국자본 투자로 신흥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은행 그룹에 설립한 국제 투자보증기구로 정치적 위험(전쟁, 정부 계약 위반 등)에 대한 보험 제공

** (사례) 튀르키예 가지안텃 병원 건설('17), 네팔 UT-1 수력발전('20), 미얀마 경협 산단('20) 등

- 환율, 원자재 가격, 지정학 리스크 등 주요 변수의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리스크정보시스템 구축

□ **해외인프라협력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지원

* 우리기업 수주 지원 등을 위해 주요 국가에 협력 거점 설치('12~)

- MDB 등과 인프라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연계 기능을 신설하고, 각 분야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협력 사업에 활용
- 글로벌 디벨로퍼와 함께 투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일부 거점을 세계 금융허브에 재배치 추진
- 국가별 경제·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협력센터를 유연하게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예시) 센터 1개소는 국가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지역 변경 여부 검토

□ 글로벌 금융 확보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네트워크** 구축

- KIND에 주요 MDB의 입찰정보 수집·제공, 우리기업 컨설팅 사업 입찰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는 MDB 협력 전담팀 신설
- KIND - MDB - 우리기업(협·단체) 간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재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 검토 가능 프로젝트 예시 :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프로젝트 >

단계	재원	우리기업 참여
재산권, 지적, 토지이용규제, 주택 건설, 택지개발 등 제반 정책·제도 자문	MDB 초기사업 (한국신탁기금 등)	LH가 신도시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구조화 등 지원
도로·하천·ITS 등 인프라 개발 기술지원(TA)	MDB 초기사업 (한국신탁기금, 다자신탁기금 등)	인프라 공기업, 연구원, ENG기업 등이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
통합 주택 관리 시스템 구축,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 수립, ITS 마스터플랜 수립 등	ODA, K-City Network 등	인프라 공기업, 협회, 민간기업 등 참여
도로·상하수도 건설, 공공시설 건설 등	EDCF 등	건설기업 참여
주택·상업시설 개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MDB 차관, PPP(KIND 투자 등)	우리 건설기업, KIND 등 참여

② KIND를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

□ KIND가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공공기관, 건설기업 등과 함께 사업 개발 세미나 개최 등 사업 발굴체계를 갖추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사업 분석 실시
- 사업별로 최적의 수익 구조, 리스크 등을 집중 분석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협력을 위한 단기 계약제도 도입 검토
 - * (예시) A 디벨로퍼사는 사업 발굴시 사업개발팀, 재무팀, 법률팀, 기술팀 등 인력들이 단기 팀을 구성하여 협상·금융모델·계약구조, 수요, 기술 등을 집중 분석하여 추진여부 결정
- 사업성 있는 것으로 검토된 사업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해외 투자자와 매칭 지원
- KIND의 금융 네트워크와 신인도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고 금융 조달구조를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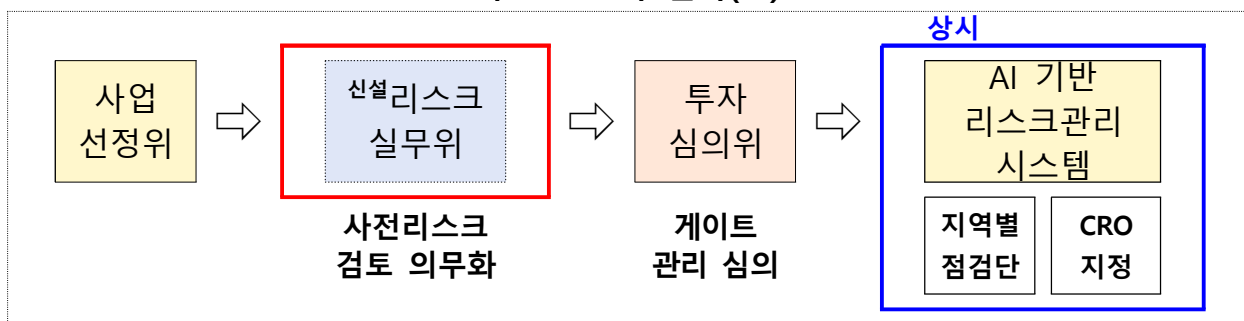
□ KIND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효율화 추진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원 선임, 예·결산 승인 등 기관 운영절차 간소화
- 해외 발주처,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협력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 신용등급(Fitch, Moody's, S&P 등) 확보 추진
 - * KIND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AAA, 안정적) 확보('19)
- KIND의 운영비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간 총투자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수익 사업에 투자 허용
 - * (예시) 향후 우리기업의 참여가 기대되는 인프라 관련 수익 사업에 투자 등
- 사업 실명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인력 적재적소 배치 등 운용 효율화, 예산집행지침 개정 등으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추진

□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 건설, 수요·공급, 금리·환율, 정치·제도 등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에 대한 사업별 검토 강화
- 리스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투자 결정 전 리스크 심의를 의무화 하고, 단계별 게이트 관리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체계 효율화
- AI 기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지역별 리스크 점검을 통해 객관성 확보

< 리스크 관리 절차(안)>



- 기관장 주재 리스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리스크 담당 부서장을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로 지정하여 독립적 권한 부여
- 개별 사업의 투자 한도를 KIND 자기자본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추진

□ **KIND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요 **G2G 인프라 사업** 뒷받침

- 한·미 통상협력, 정상순방 등 계기로 발굴된 G2G 인프라 협력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긴급 타당성조사(F/S) 시행
-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KIND 주도로 투자를 추진하고, 우리기업 참여를 지원하여 G2G 사업 성과 극대화
- KIND가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인프라 분야 정부 간 수출계약 (협상·계약·이행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KOTRA와 협력체계 구축

* 현행 「대외무역법」 상 G2G 계약 체결 주체는 KOTRA이나, 실질적 사업 주체는 인프라 공공기관으로 계약·사업 주체가 이원화되어 불확실성 존재

전략 3

해외건설 산업 지원기반 확충

3-1

민관협력 진출체계 고도화

- ◆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구축으로 팀코리아 수주 지원

① 팀코리아(Team Korea) 지원체계 강화

□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통해 G2G 외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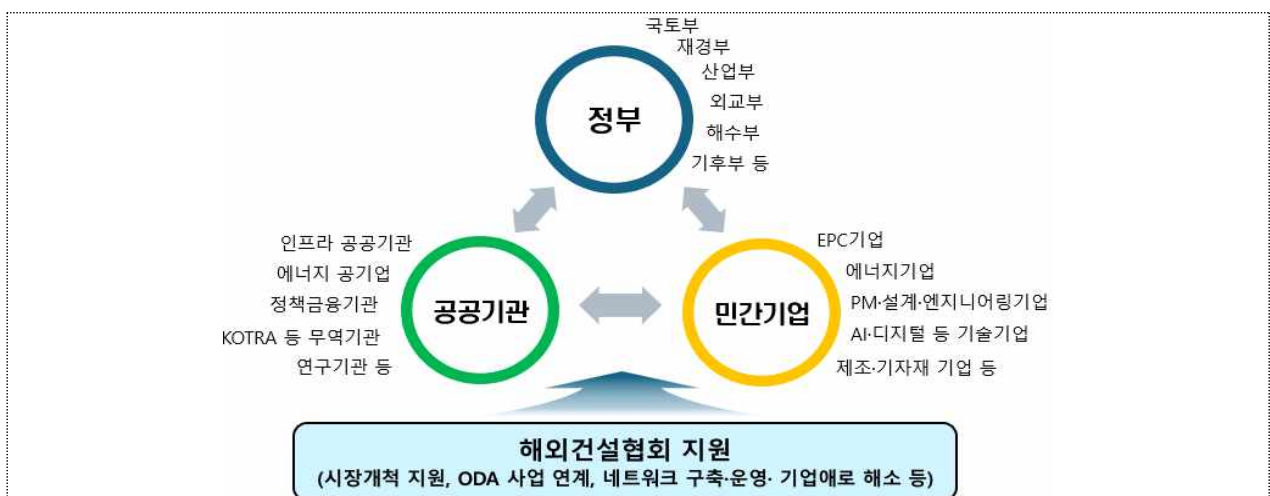
- 정상회담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인프라, 항만, 방산, 제조 등에 대한 범정부 전략적 수주 지원체계 구축

< 중동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사례('26.5) >

- (추진배경) 중동전쟁 이후 주요국이 복구를 넘어 산업 다각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고도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협력기회로 활용
- (TF 구축) 범정부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구성하여 인프라·금융·외교 등 분야별 진출전략을 수립·지원하고, 해외수주 협의회 등과 연계
 - * (참여기관) 국토·재경·산업·외교·해수·기후·과기부 등, 유관 공공·금융기관, 협회 등
- (금융지원) 중동 발주처 대상 60억불 규모의 우리기업 수출·수주 견인 선금융 제공

- 전략 외교 대상국에 대해 건설시장, 투자 환경, 개발법령 등의 심층정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기 의제 발굴 추진
- 범정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해외 사업을 공유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수주 지원

< 팀코리아 지원체계 구조 >



□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 확대 및 전략적 진출 추진

- 인프라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KIND의 금융을 결합하여 충분한 사업 지분을 확보, 우리기업과 패키지 수주 추진

* (예시) 인국공·철도공단·도공(CI, OI)+KIND(FI)+우리기업(CI, EPC)+인국공·도공(O&M)

- 해외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신속예타를 활용하고, 전문인력 채용제도 현실화, 해외파견 인력 지원 등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

-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지·제3국 기업과 협력하여 수주 경쟁력 제고

* (사례) 철도공단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체코, 폴란드 등 현지기업과 컨소 구성

□ 우리기업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해외건설협회 역량 강화

- 미수금, 발주처와 분쟁 등 사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회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정부 지원 요청, 법률 컨설팅 등 제공

-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발주처 분쟁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하고, 고위급 서한 발송 등 G2G 지원 병행

* 기존 컨설팅 지원 예산 4억원에서 추경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원 지원('26)

-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우리기업 간 하도급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 공공기관이 해외 진출 시 부족한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주최하여 신기술 등 발굴 지원

* 자체 R&D를 넘어 외부 기술, 아이디어,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

- 해외건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집행, 법·제도 연구,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조직(가칭: 해외 인프라 협력 진흥원) 신설 검토

② 지원제도의 연계성 강화

□ 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해외건설 업무의 유기적 연계 강화

- 분산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국토교통 ODA 기본계획 등)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 제시
- 그간 훈령 등으로 지정해온 정부업무 위탁 관리기관을 법령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화(「해외건설촉진법」 개정)

* (예시)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정책펀드(KIND), 현장훈련(OJT)(해외건설협회) 등

- 정책펀드 관리 업무를 KIND 이전함에 따라 펀드 운용 및 투자 결정 등 심의를 주된 역할로 하던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 추진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상 용어 변경 및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 정책 대상 확대

* 해외공사→해외사업, 시공 위주→투자개발·도시개발 사업, 기술 사업 등

□ 해외건설 지원제도의 전략적 연계로 사업 쏠단계 지원

- 사업 기획단계에서 ODA로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 타당성조사, 본사업의 KIND·정책펀드 투자, EDCF 등을 연계
- 사업 수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노무 등 현장 애로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공관을 통한 G2G 지원을 연계

- 기 수주한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배후 산단, 도시개발 등 후속·확장 사업을 연계 수주할 수 있도록 G2G 차원에서 제안 및 지원

* (예시) 신공항 개발사업 수주 이후 KIND 주도로 배후 도시개발사업 제안 등

- 투자개발사업의 수주 효과 및 초기 지원사업 연계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마련하여 산업을 뒷받침

* (예시) 사업 단계별 구조, 총사업비, 지분투자액, EPC 계약액, O&M 계약액, 금융조달 규모 등

□ 국제 인프라 행사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 네트워킹 강화

- GICC* 참석 대상을 콘테크, AI·디지털 등 유관 기술 기업으로 확대하여 산업 융합을 촉진하고 발주처 맞춤형 기술 홍보 추진

*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 신산업 기술 매칭 센터, K-건설 아카데미, MDB 협력 세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발주처 및 MDB와 기술 교류 유도
- GICC 일정 중 해외 발주처와 우리기업 간 미팅 비중을 확대하여 행사 계기 실질적인 사업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GICC, 스마트건설·안전·AI엑스포,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국토교통 과학기술대전 등 유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글로벌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십 구축

- 해외 발주처 장기연수 등 초청 프로그램 활성화로 우리 기술 및 정책에 익숙한 해외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인적 파트너십 구축

< 인프라 정책 석사과정 개요 >

- (목적) 중점협력국 정책 담당자, 발주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스마트건설, PPP, 국토 개발계획 등 한국형 인프라 정책,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 (과정) 3학기 석사과정(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정책 석사과정*)
- * Master's degree in Urban Development and Smart Infrastructure Policy, MUDSIP
- (인원) 20명 / (실적) '18년 최초 선발 이후 30개국 158명 선발

- 주요 MDB와의 지식·경험 공유 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 담당 공무원과 정책, 기술 등을 교류하고 장기적으로 정례화 추진

* (예시) 세계은행 교육플랫폼(WBG Academy)과 우리 인프라 공공기관, 협회 간 협업을 통해 개도국 정부와 경험을 공유하고 후속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연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사업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보

- ◆ 우수한 인력과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우수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매칭펀드(예시: KIND 참여비율 60%)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동반진출 전용 창구 개설
-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Pool을 구성하고,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에 협력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제도가 본사업화 및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예시) 지원 사업선정부터 용역 발주까지 해외건설협회의 단계별 관리 강화 등

□ 정책사업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

- 유·무상 ODA 사업을 확대하고 후속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마중물 제공
- KIND 등의 MDB 사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사업 입찰 및 제안서 작성 등 지원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해외건설사업 보증 지원을 활성화하고,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배상책임보험 등 맞춤형 상품 지원

* 국내 건설 유관 공제조합들은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국가에서 우리 건설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 지원 중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상 각종 규제 개선

- 해외건설 사업 과정 중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항목을 간소화*하고, 통보 기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기업 편의 제공

< 상황통보 제도 개선(안) >

현행	개정
○ (통보 대상, 7개) 수주활동 현황, 계약체결 결과, 해외공사 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 공사내용 변경, 사고 ○ (통보 기한) 수주활동 현황 - 도급 :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 그 외 : 공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 (통보 대상, 6개) 수주활동 현황, 계약체결 결과, 해외공사 실적, 준공 결과, 공사내용 변경, 사고 ※시공 경과 제외 ○ (통보 기한) 수주활동 현황 - 도급 : 입찰예정일 전까지 - 그 외 : 공사 개시일 전까지

-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정의*를 명확화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규정한 벌칙 조항을 개선하여 제도 합리화 추진

* (예시) 사고 발생 15일 내 통보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고 정의가 불분명

** (사례) 사업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의무가 있으나, 현지 발주처의 증명서 발급 등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수

□ 해외건설 수주 성공 사례 등 기업 노하우 공유의 장 제공

- 해외건설 우수사례(BP) 경진대회, 해외건설의 탑* 등을 통해 우수 수주 사례와 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사업 경험을 기업들에게 공유

* 최근 2년 이내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구분 수여

-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해외건설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도서,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장개척 우수 사례 지속 확산

* (예시)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도서·영상으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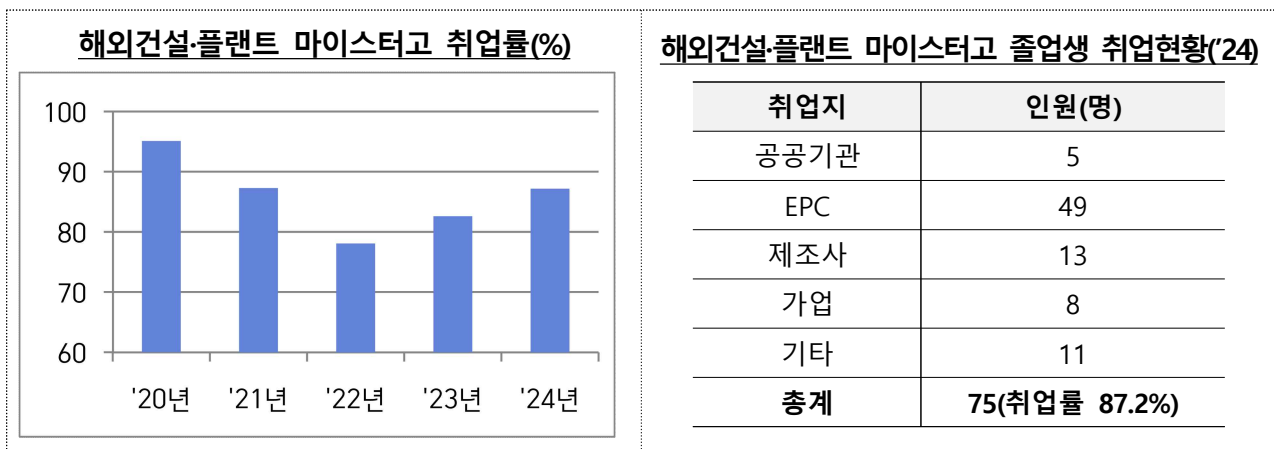
② 우수 인재의 해외건설 산업 유입 촉진

□ 해외건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효과성 제고

- 투자개발사업 참여 확대 추세에 따라 인프라 투자·금융에 특화된 석·박사급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신설 추진
- FIDIC 인증 교육 프로그램 등 PM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IoT, BIM, AI 등 최첨단 해외건설 교육과정을 고도화
-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PPP 특성화대* 지정을 확대하고, 인력 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

* 교육과정 이수 취업자 중 100%가 건설업계 취업(건설사, 인프라 공공기관, 운용사 등)

< 해외건설 인력 양성제도(마이스터고) 운영 효과 >



- 인력양성 제도에 대한 참여자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

□ 해외건설 인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이탈 방지

- 해외 사업지 파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검토
- 해외근무 후 국내로 복귀한 인력이 경험과 전문성을 국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착 지원체계 마련

【 인프라 · 금융 전문 대학원 개요 】

□ 개요

- 해외건설시장에서 각국 재정의 한계로 민간자본이 결합한 투자개발사업(PPP)이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사업 핵심요소인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
- 이에, 인프라 공학·금융·제도에 대한 기초 이론을 토대로 사업 간접 경험 까지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 신설 추진

□ 운영방식

- 기초이론 70%와 사례연구 30%의 비중으로 PPP 필수 교과목을 편성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구성

< 필수 교과과정 예시 >

구분	주요 과목
공학기초	구조역학, 재료역학, 수리역학, 토질역학 등
금융기초	회계원리, 재무·원가회계, 재무관리 등
제도기초	자본시장법, 상법, 국제계약 및 클레임, 공공조달론 등
사례연구	사례 분석 및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 실무기초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의 기획 및 금융구조 설계 역량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출 가능 시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기반 프로젝트 구조화 실무연구 예시 >

- PF 조달이 어려웠던 여수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을,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BTO-a 사업과 연계하여 수익공유 구조로 재설계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활용
- 복수 사업 결합, 현금흐름 재구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학습
-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 금융구조 설계, 위험분담 방식 조정 역량을 배양하고, 해외 인프라 사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례연구 시행

※ [참고] 해외 주요 PPP 학위과정

대학·과정명	기간	교과 구성	졸업 후 진로
UCL 인프라 투자·금융 석사과정(영국)	1년	- 인프라 금융·경제 ·투자·리스크관리 등	- 졸업생 중 80%가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 Deloitte, EY, 수출입은행 등
국립교통대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 석사과정(프랑스)		- PF·PPP·재무모델링, 회계·법률·구조화금융 등	- 회계법인, 투자기관, 건설사 등 - 졸업 6개월 내 취업률 100%
미시간대 스마트 인프라 금융 전문석사과정(미국)		- 인프라금융·데이터분석 비즈니스모델 등	- 회계·컨설팅, 사모투자, REITs, 건설사 등 인프라 분야 진출

Ⅶ. 추진일정

세부과제		조치사항	시기	소 관
전략1 기술력 기반의 수주모델 육성				
①-1 강점기술 기반 K-건설 입지 확대				
1.	강점 기술 기반의 전략적 시장 진출 지원	제도개선, 지원확대	'26~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등
2.	한국형 인프라의 해외수출 활성화	제도개선, 지원강화	'26~	국토부, 재경부
①-2 유망 기술의 경쟁력 확보 지원				
1.	유망 기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R&D 기획, 지원확대	'27~	국토부
2.	세계적인 PM 기업 육성으로 우리기술의 영향력 확대	제도개선, 시범사업, 지원확대, 협력확대	'26~	국토부, 재경부, 산업부
전략2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수주 경쟁력 강화				
②-1 투자개발사업 참여 확대 지원				
1.	정책금융의 기업 지원 기능 강화	협업, 협력확대, 기능확대·강화	계속	국토부, 예산처, 재경부, 기후부
2.	글로벌 금융 기반의 우량사업 참여 지원	협력확대	'27~	국토부, 재경부
②-2 인프라 금융 거버넌스 효율화				
1.	글로벌 금융 지원체계 고도화	제도개선, 지원강화, 시스템 구축, 기능강화	'26~	국토부, 재경부
2.	KIND의 사업 역량 강화	기능 확대·개선	'26~	국토부
전략3 해외건설 산업 지원기반 확충				
③-1 민관협력 진출 체계 고도화				
1.	팀코리아(Team Korea) 지원체계 강화	협업, 기능강화, 기반조성	'26~	국토부, 재경부, 산업부, 외교부 등
2.	지원제도의 연계성 강화	제도개선, 협력확대, 기반조성	계속	국토부, 재경부, 외교부
③-2 강소기업 및 인재 유입 지원				
1.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지원강화, 제도개선, 관리강화, 기반조성	계속	국토부, 재경부, 외교부
2.	우수 인재의 해외건설 산업 유입 촉진	제도개선, 지원확대	'26~	국토부, 산업부 등